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매파적 금리 인하에 흔들린 나스닥, 3.6% 급락

- 다우 10거래일 연속 하락 및 나스닥 -3.6% 급락
- 연준, 0.25% 금리 인하 단행, 내년 두 차례 인하 예상.
-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4.5% 돌파

Summary

미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금리인하'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함. Fed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였음.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크게 달라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에 충격을 주었음.

이로 인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6% 하락하며 42,326.87로 마감하였고, 이는 10거래일 연속 하락 기록으로 1974년 이후 최장의 하락세임. 나스닥 종합지수는 3.6% 하락한 19,392.69로, S&P 500 지수는 2.95% 내린 5,872.16에 장을 마감함.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도 4.03% 하락하며 2,240.07 기록함.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내년 경제 전망이 매우 밝다고 강조했으나, 정책 조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밝혔음.

주요 경제 지표로 미국의 11월 건축 허가 건수가 월간 6.1% 증가하며 경제의 일부 견조성을 보여주었으나, 주택 착공은 예상을 밑도는 1.8%의 감소세를 보였음. 한편, 국채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486%로 상승하며 시장의 금리 부담을 증가시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요 지수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음. (다우 -2.58%, 나스닥 -3.56%, S&P500 -2.95%, 러셀2000 -4.39%)

특징종목

엔비디아(-1.1%)는 EQTY Lab과 인텔과의 협력으로 'Verifiable Compute'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집중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이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AI 플랫폼이 개발자들에게 생성적 AI 역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반면, 마이크로소프트(-3.8%)는 기술주 전반의 조정에 동반한 하락세를 겪었으나, ChatGPT의 기능 강화와 GitHub Copilot의 무료 출시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테슬라(-8.3%)는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알파벳(-3.5%)도 경쟁 심화와 기술주 조정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임. 한편, 아마존(-4.6%)은 Teamsters 노동조합과의 갈등과 파업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음. 자빌(+7.3%)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며 고성능 데이터 인프라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기록함.

혼다(-4.8%)는 일본 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닛산과의 합병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락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브로드컴(-6.9%)은 경쟁 심화와 투자자들의 매도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52로 상승하며, 금리 인하보다 예상보다 적은 인하 예고로 인해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음.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 국채 수익률 또한 상승세를 보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가 두드러짐.

달러인덱스가 1.04% 상승한 108.07을 기록하며, 특히 유로와 파운드 대비 강세를 보임. 유로/달러는 1.037로 하락하며 1.13% 하락했고, 파운드/달러는 1.259로 0.98% 하락함.

한편, 상품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동안 0.02% 상승한 70.10 달러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는 3.04% 급등하며 3.41 달러로 거래됨. 전반적으로 금속 가격은 하락 경향을 보였으며, 금 가격은 2.04% 감소한 2593.33 달러에 거래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연준의 정책 변화 전망이 채권, 외환 및 상품시장의 변동성을 강화하고 있음.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3.0	배당성장 (SCHD)	-2.6
S&P500 동일가중 (RSP)	-3.0	미 국채 (AGG)	-0.8
나스닥100 (QQQ)	-3.6	미 장기 국채3X (TMF)	-3.7
다우 (DIA)	-2.6	매그니파센트 7 (MAGS)	-4.4
대형성장 (MGK)	-3.3	인공지능 (AIQ)	-3.7
소형주 (IWM)	-4.4	메타버스 (METV)	-3.9
인도 (INDA)	-1.8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2.0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3.7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4.1	방위산업 (SHLD)	-2.6
헬스케어 (XLV)	-1.4	스마트 그리드 (GRID)	-3.3
항공 (JETS)	-2.7	미국 인프라 (PAVE)	-3.7
소프트웨어 (IGV)	-4.5	친환경 (ICLN)	-3.1
바이오테크 (XBI)	-4.9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종가	D-1(%)	D-5(%)	D-20(%)
헬스케어	1,595.6	-1.4	-3.5	-3.4
필수소비재	871.0	-1.4	-1.9	+0.5
유틸리티	377.8	-2.4	-3.6	-6.6
에너지	639.7	-2.6	-6.7	-12.3
산업재	1,116.8	-2.8	-4.5	-4.8
소재	535.7	-2.9	-5.7	-7.3
IT	4,590.3	-3.0	-2.3	+2.3
금융	790.1	-3.0	-4.4	-4.9
커뮤니케이션	343.2	-3.2	-4.3	+4.5
부동산	254.0	-4.0	-5.7	-6.4
경기소비재	1,866.8	-4.7	-3.2	+7.5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종가	D-1(%)	D-5(%)
WTI	70.6	-0.1	-0.4	달러인덱스	108.24	+1.2	+1.4
Brent	73.4	-0.4	-0.9	유로/달러	1.0353	-1.3	-1.4
미국 천연가스	3.4	+3.0	+0.9	달러/엔	154.80	+0.9	+1.5
석탄	107.0	-2.3	-4.3	달러/역외위안	7.3249	+0.5	+0.6
금	2,653.3	-2.3	-5.6	달러/원(NDF)	1,452.2	+1.0	+1.7
은	30.4	-0.4	-2.6	비트코인	100,950	-5.1	-0.4
구리	9,045.0	+0.6	-1.6	이더리움	3,690	-6.1	-5.5
알루미늄	3,001.0	-1.1	-4.0	나스닥 크립토	5,246	-5.3	-1.8
밀	541.3	-0.7	-3.9	CRB 상품 (12/17)	349.3	-0.8	-0.9
대두	953.3	-2.6	-5.0	LME 금속 (12/17)	3,970	-0.9	-2.0
소고기	188.3	-0.7	-1.5	발틱 건화물 운임	1,053	-2.4	-2.6
돼지고기	83.7	+0.6	-0.8	컨테이너 운임(주간)	3,529	+85	-64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종가(%)	D-1(bp)	D-5(bp)
미국	4.51	+11.5	+24.3	미 국채 10-2년	15.3	+0.3	+3.7
한국	2.74	-5.5	+4.8	미-한 국채 10년	177.9	+17.0	+15.1
일본	1.08	-0.2	+0.6	미-일 국채 10년	343.2	+11.7	+15.6
독일	2.25	+1.5	+11.8	프-독 국채 10년	80.3	-0.1	+2.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